

하나님의 공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신명기 16:18-20 [흠정역]

18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네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네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 너는 전적으로 의로운 것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상속하리라.

1. 2020 미국 대선과 하나님의 공의

지난 몇주동안 미국에서는 2020 대통령 선거 부정에 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백건의 투표, 개표 및 집계 등과 관련한 법과 규정 위반 및 범죄 행위들에 대한 증거 및 증언들이 수집되어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주의 선거인단 선정이 안되거나 지연되었거나, 주 주사의 선거 결과 선언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면서 12월 14일에 예정된 선거인단의 대통령 당선자 결정 투표가 제대로 실시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 대선에 관여했다는 증언들과 증거들이 드러났으며, 중국 학자가 중공의 미국내 정치 공작이 1970년대부터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 미국민은 이제 공산당의 미국 파괴 공작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었고 그 극단적인 결말이 현재 노정되고 있음을 알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정의 (正義)' 또는 '공의(公義: Justice)'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정의 구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고 이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읽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사법 체제를 수립할 때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지 말고, 뇌물을 받아 판단을 그르치지 말며, 오직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이 원칙은 '직무 수행자' 즉 행정관들과 법관들에게 공통으로 하신 원칙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서의 가르침이 오늘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국가 통치 및 사법 체제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움 (Just, Righteous)'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들'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이 아니라 동물의 대속 피를 통하여 깨끗함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개념은 강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번 죄인들을 위한 대속 희생양이 되셔서 그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25-5:1]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사법 체제의 기본 정의는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 원칙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를 통하여 기르쳐 주신 각종 윤리 법규를 지켜서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킴으로써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활로 표현하여야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진리에서 멀리 떠나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였으며,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겠다고 여러번 그들의 회개를 간곡히 전파했습니다. 죄인이 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회개하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아모스 5:15]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그리하면 혹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사야 30:18]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2.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 정의의 실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후에 더해질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현할 것을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노력해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사회에서 엄연하게 존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그 왕국에서 실행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받았던 소명과 동일한 소명을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선거

부정이 반드시 드러나 모든 범법자들이 밝혀지고 처벌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미국 땅에서 확실히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공의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국가인 이스라엘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국가에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야 하였으나,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므로 공의의 물리적 구현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억지 논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할 소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부여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1:42] 그러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주 예수님께서서는 1세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십일조를 부과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소홀히 한다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성전과 회당 등 종교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물질적 헌납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국가 및 사회 운영 관리의 행위에서 실천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러한 행위에 구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의 실천이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올 천년 왕국에서 이룩될 원칙이기도 하지만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룩해야 할 소명이기도 합니다.

3. 정의가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라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통하여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In God We Trust'라는 모토를 앞세우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하면서 수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헌법, 연방법 및 주법 등의 각종 법률과 규정을 수립하여 나라의 모든 일들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법치 국가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선거 부정 양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불법 행위들이 주지사, 장관, 선거 위원장과 선거 책임자들의 공공연한 의도적 계획과 감독하에 자행되었다는 물증과 증언들이 수백건 발표, 제출되었으며 수차의 공청회를 통하여 모두 드러났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 행위들이 자행되었고 이를 은닉하고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엄청난 배후 세력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부정의 노출 및 처벌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통령 선출 프로세스의 합헌적 진행 노력은 미국의 헌정 사상 남북 전쟁과 더불어서 미합중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든 노력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의 승리와 범법자들의 척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물건너 가는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담당 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 반역죄를 범한 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선거 사범들이 기소되고 처벌되는 것이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4.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명을 주셨으며, 이 소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정의보다는 포악함과 착취적 정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1세기와 유사하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구현이 이 땅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이 땅에 수립될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천국에서와 같이 온전히 실천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치자가 되실 것인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의 홀은 의로운 홀(笏), 즉 권위로서 이는 죄를 짓는 자들을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전통과 문화를 수립하며, 동시에 죄인들을 순화시킴으로써 올바른 백성으로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 왕국에 범죄가 없지는 않을 것이로되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판결과 정치 행위에 온전히 반영될 것입니다.

[시편 45:6-7]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笏)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사야 5:16] 오직 만군의 주는 판단의 공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구현되는 천년 왕국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라는 소명임을 기억합니다. 이 소명을 이룩하려고 고전 분투하는 전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며, 우리가 할바를 부지런히 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